



ESG

최근 10년 코스닥→코스피 이전상장 내역

Analyst 엄수진 sujineom@hanwha.com 3772 7407

2016년 이래 코스닥→코스피 이전상장 내역

최근 10년 간 코스닥에서 코스피(유가증권시장)로 이전상장한 회사를 조사한 결과, 2016년 7월~2024년 6월 기간동안 16개사가 있었다. 이 중 셀트리온, 카카오, 동서, 엘앤에프, 포스코DX, 포스코케미칼(現 포스코퓨처엠)은 코스닥시장 내에서 시가총액이 5위 안에 들던 대형 우량주였다. 이러한 우량주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빠져나가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가 발생하거나, 남아있는 종목 중 시총이 크게 오르는 종목이 없는 한) 코스닥 지수가 타격을 입게 된다.

2016년 7월에는 한국토지신탁과 동서가, 2021년 7월과 8월에는 순서대로 엠씨넥스와 PI첨단소재가, 2024년 1월에는 포스코DX와 엘앤에프가 코스닥에서 상폐됨과 동시에 코스피에 신규상장하였다. 이전상장은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2개 이상 기업의 이전상장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1] 2016년 이후 코스닥→코스피 이전상장 내역

(단위: 백만 원)

종목코드	기업명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일 &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일	상폐일 전일과 당일 간 코스닥 지수 변화 (당일 지수-전일 지수)	상폐일 전일 시가총액	상폐일 전일 코스닥시장 내 시총 순위	상폐일 전일 시가총액 코스닥 지수로 단순 환산 ^{주1}	상폐일 전일 코스닥 지수
034230	파라다이스	2024-06-24	△11.15	1,363,726	41위	2.81	852.67
066970	엘앤에프	2024-01-29	△18.10	5,777,903	4위	12.15	837.24
022100	포스코 DX	2024-01-02	12.36	11,280,977	4위	22.64	866.57
030190	NICE 평가정보	2023-08-08	△5.88	728,578	90위	1.50	898.22
090460	비에이치	2023-06-20	△2.20	978,788	62위	2.03	888.61
100090	삼강엠엔티 (現 SK 오션플랜트)	2023-04-19	0.18	1,160,523	47위	2.45	909.02
108320	LX세미콘	2022-11-03	△3.24	1,341,805	28위	2.90	697.37
178920	PI첨단소재	2021-08-09	0.20	1,568,162	31위	3.75	1059.80
097520	엠씨넥스	2021-07-06	△2.37	854,768	81위	2.04	1047.33
036420	제이콘텐트리 (現 콘텐트리중앙)	2019-10-18	△2.60	489,835	77위	1.39	649.29
003670	포스코케미칼 (現 포스코퓨처엠)	2019-05-29	△11.29	3,226,277	5위	9.40	702.76
192080	더블유게임즈	2019-03-12	15.67	1,141,281	25위	3.33	739.09
068270	셀트리온	2018-02-09	△19.34	33,291,667	1위	93.23	861.94
035720	카카오	2017-07-10	△5.91	6,886,563	2위	20.72	663.77
026960	동서	2016-07-15	△3.06	3,414,725	3위	11.08	703.34
034830	한국토지신탁	2016-07-11	4.65	954,409	23위	3.09	692.60

주1: 증자, 신규상장, 이전상장 등의 이벤트 발생 시 기준 시가총액(분모)도 함께 조정되기 때문에 해당 값만큼 지수가 온전히 변동되는 것은 아님

자료: 한국거래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코스닥→코스피 이전상장 사유

상기 16개사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상장을 추진한 이유로는 기업가치 리레이팅, 투자자 저변 확대를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참고로, 2018년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회사 중에서도 유가증권시장 동일업종 Peer 대비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기업은 이전상장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고, 유가증권시장의 수익률이 좋고 코스닥시장의 수익률이 저조할 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의 이전상장 가능성이 상승한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이미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업이 겹치는 2개의 계열회사가 동일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투자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모회사가 코스피로 옮겨간 사례도 있었다(제이콘텐트리, 더블유게임즈).

[표2] 최근 10년 코스닥→코스피 이전상장 기업들의 이전상장 추진 이유

- 코스닥시장의 저성과와 낮은 평판 등으로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재평가 받기 위해
- 공모도 노출 등으로 인한 주가 하방 압력 완화
-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으로 투자자 저변 확대
- 인지도, 브랜드, 신뢰도 향상
- 주주 소통 강화
- 미래 성장동력 확보, 마케팅 등을 위한 투자 자금 확보
- 글로벌 고객사 유치, 인재 영입 등 지속성장 기반 강화
- 자회사의 코스닥 상장: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경우 투자 수요 분산 우려
- 안정적인 주가 관리 (변동성 축소 등)
- 매출액 확대, 사업 분야 확장 등 외형적으로 성장함
- 대다수 동종업계 경쟁업체들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음

자료: 언론 보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08월 20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엄수진)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